

광주시교육청, 고3 수험생·학부모 위한 진학지도 지원

대입 일정 연기…고3 대입 전략 동영상 보급

오늘부터 10일간 고3 학부모 전화 상담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기간에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학지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입 일정

연기에 따른 고3 수험생 대입 전략 동영상을 제작해 지난 10일 보급했고, 고3 학부모 전화 상담을 실시 키로 했다.

대입 일정 연기에 따른 고3 수험

생 대입 전략 동영상은 패널 토의 방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개학으로 고민이 많은 고3 학생들에게 변경된 대입 일정 및 대비 전략을 20분 동안 상세히 소개한다. 온라인 개학에서 등교 개학으로 연계되는 학습 법과 연간 진학 로드맵도 제시한다.

고3 학부모 전화 상담은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 동안(주말·공휴일 제외) 운영한다. 사전

신청을 통해 자녀의 진학설계에 대한 질문을 받아 중등교육과 진학팀 소속 대입지원관과 상담교사가 해당 시간에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수시·정시 전형 및 입시 결과, 각종 대입 정보 등 자녀의 진로진학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시간은 10분 동안이다.

또 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과

대입 일정 연기에 따라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학지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 의성 있는 동영상 및 대입 대비 자료집인 ‘빛고을 대로’를 시리즈로 제작·보급한다. ‘빛고을 대로 #1. 2021학년도 대학 입시 분석 자료집’에 이어 ‘빛고을 대로 #2. 수능 최저학력 기준 분석 자료집’도 발간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우재학 중등교육과장은 “온라인 개학과 대입 일정 연기로 걱정이 많을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다양한 대입 대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동영상은 광주시교육청 유튜브에 게시돼 있고,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호 기자

진도교육청, 보배섬 전학공 온라인학습 지원 앞장

수업컨텐츠 공동연구, 교사 연수 매뉴얼·자료제작 보급



진도교육청은 최근 보배섬 전문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 대표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현장 실태 나눔과 전학공 활성화 토론의 자리 를 가졌다.

이날 전학공 대표자들은 ‘Jump Up Together! 수업혁신

과 보배섬 전문학습공동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교사들의 역량강화이며, 이를 위해 전학공을 중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해야 함”을 공유했다.

보배섬 전학공은 지난 3월, 학교 21개팀과 학교밖 8개 팀이 선정돼 전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휴업 중 활동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팀별 전문성을 살려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학교밖 전학공인 보배섬 스마트교육팀은, 지난 2일부터 진도교육청 온라인학습지원단 JOA(진도온라인교육에이드)의 구성과 운영에 전원 참여해 현재 모든 학교로 ‘찾아가는 원격수업 지원연수’ 강사로 활동하는 중이다.

‘건강 하나! 행복 둘!’ 보건교사 전학공 대표인 석교초 심영림 교사는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관내 선생님들과 손소독제 만드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는 중”이라며, “전학공이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교사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전학공인 ‘한울 타리 상담 연구회’ 또한 휴업 종료 이후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공백 기간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교실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담활동 매뉴얼과 자료 등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 모임을 갖는 등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현장 사례들을 나눴다.

진도초 최인호 교사는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앞으로는 교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의 자발성과 유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학공 팀별로 좋은 연수나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실행하는 등 교사들이 전학공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도교육청은 지역의 공공기관 및 마을학교와 협력해, 확보된 전학공 활동 공간을 안내하고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 공간 지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 학생유권자 소중한 민주주의 교육 꼭 참여” 당부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전남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오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장 교육감은 선관위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미터 간격으로 줄을 서서 기다린 뒤 위생장갑을 끼고, 별열체크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 투표 절차를 완료했다.

투표를 마친 장 교육감은 “이번 선거부터 18세까지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전남 학생 6,000여 명도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서 “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민주주의 교육이 되는 만큼 투표에 꼭 참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전투표는 11일 오

현성은 기자

화순Wee센터, ‘마음나눔기트’ 지원한다

화순교육청은 장기화 된 코로나 19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화순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돋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모바일상담 및 가정방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과 위기감을 경험하는 관내 학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없이 카카오톡 채널 ‘화순 교육청Wee센터’나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 전화상담 등이 진행된다. 비대면상담이 아닌 대면상담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는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예방조치 후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생들의 정상적 등교가 이뤄지는 기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암교육청, 온라인 개학 학교 현장 지원

영암교육청이 지난 9일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된 온라인 개학에 따라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 수업 현장과 학생 정리를 방문해 현장지원에 나섰다.

영암 관내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그동안 준비한 콘텐츠를 구글 클래스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의 플랫폼에 텁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별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수행 중심 수업을 실시했다.

영암중학교는 오전 10시부터 실시간 쌍방향으로 온라인 개학식을 가졌다. 정미화 교장 인사를 듣기 시작으로 전·출입교원 소개, 담임교사 및 각 교과별 교사 소개 등을 온라인 상에서 실시, 학생들이 직접 개학식에 참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 정미화 교장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낯설고 어색함은 있겠지만, 화면상으로 나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며 “등교해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자.”고 당부했다.

학교 별로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진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대체학습지 제공, 가정방문을 통한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첫 온라인 개학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성애 교육장은 “영암여고 김상희 학생과 영암미암중 박지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인터넷 환경이 구축돼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을 마음으로 깊이 격려했다.

김성애 교육장은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선물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신 선생님, 그런 선생님의 수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크나큰 감동과 함께 전남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선생님이 정성스레 디자인하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